

커피향 그윽한 우리동네 문화 사랑방

문화 아지트

③ 수완지구 동네책방 '숨'

안석·이진숙 부부 12월 문 열어
문학, 전라도 문화, 생태·환경 등
고객과 함께 선정한 300여종 갖춰
1만여권 소장 작은 도서관도 운영



지난해 문을 연 '동네 책방 숨'의 안석·이진숙 부부는 책과 연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꿈꾼다.

모든 것은 한 권의 책으로부터 시작됐다. 전국의 작은 동네 책방을 찾아 소개한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남해의 봄날). 광주 수완지구에서 북카페 '숨'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 안석·이진숙 부부는 전국 방방곡곡 책방을 소개한 책자에 광주·전남 지역이 한 곳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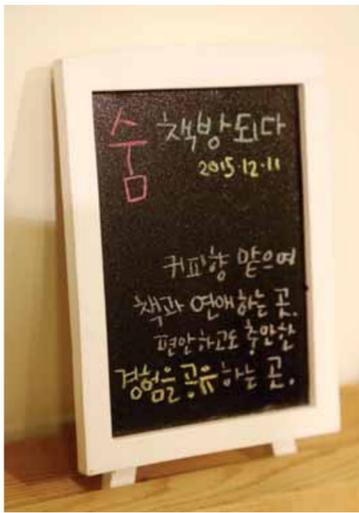
출판사로 전화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지난 여름 가게 문을 닫고 책에 소개된 몇몇 책방들을 찾아 다녔다. 이전부터 '북카페'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터라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북카페 숨'은 '동네 책방 숨'이 됐다.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동네 서점은 맥을 못추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특색으로 무장한 작은 동네 책방들이 요즘 전국적으로 화제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동네 책방이 없었는데 '숨'이 이제 막 물꼬를 텄다. 안 씨 부부는 광주 곳곳에 작은 '동네 책방'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했다.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꾸며진 '숨'은 아늑했다. 진한 커피향 냄새가 공간에 가득하다. 커피를 시키고, 책장 구경에 나섰다. 동네 책방에 놓인 책들은 결국 책방 주인의 '안목'이다. 공간이 한정된 터라 큰 서점처럼 '모든 책'을 다 들여놓을 수 없어 주인장의 '선택'을 받은 책들만 만날 수 있다. 서점 리스트를 살펴보는 건 그래서 흥미롭다. 내가 갖고 있는 책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눈에 띄면 반갑고, 행복하다.

'숨'은 문학, 전라도 문화, 생태·환경, 마을·교육·공동체, 평화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300~500여종의 책을 갖추고 있다. 주인장이 고른 책을 기본으로, 책방을 다녔던 이들이 추천한 책이 합쳐져 '숨의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숨'에서 인상적인 곳은 '전라도 문화' 코너다. 문학, 다지리, 전라도 닷컴 등 지역 출판사들이 출판한 책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 박문종 작가의



'선술집 풍경', 이원화 작가의 소설 '길은 묻다'가 반갑다. 계간지 '문학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안 씨 부부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계간지가 10년됐다는 것도 놀랐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놀랐다"며 웃었다.

"책방을 준비하면서 자기 색깔을 갖춘 북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역과 밀착된 이야기, 여기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하자 싶었죠. 또 지역 작가들과 지역 출판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웃 사람이 아니다 보니 지인들이 광주 여행을 올 때 '숨'을 찾곤하는데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코너 중 하나가 바로 전라도 문화 코너예요. 다른 책방에는 없으니까요."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5년 전 광주로 내려온 안 씨 부부는 북카페와 함께 작은 도서관도 운영해 왔다. 1만여권이 비치된 도서관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재능 기부 모임을 꾸리는 소통의 공간 역할을 해왔다. 마을과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터라 '생태, 환경, 마을 공동체' 관련 책들은 '숨'이 자랑하는 컬렉션이다.

또 세월호 관련 책자와 물품들을 따로 모아 놓은 공간도 눈에 띄며 지역에서 소소하게 활동하는 공예작가들이 만든 책꽂이도 판매하는 등 이웃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서점 옆 작은 문을 밀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서재는 '고(古)소한 책방'이다. '오래된 소중한 책방'이라는 뜻으로 예전 북카페에 있던 책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도서관을 지금도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문을 연 지 한달 남짓. 처음이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책 판매가 그럭저럭 된다며 웃는 부부는 앞으로 지역 작가들과 작은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볼 예정이다.

"사람들이 책방에 드나들고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대화하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조금씩 삶의 태도나 방식도 바뀌어갈 거라 생각해요."

책은 물론 정가로 판매한다. 구매액의 10%는 적립금 적립으로 커피 등을 마실 수 있으며 책속 독서카드를 완성하면 커피 한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숨'은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영혼을 돌보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을 지향한다. '커피향 맡으며 책과 연애하는 곳', '평안하고도 충만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 바로 '동네 책방 숨'이 꿈꾸는 공간이다.

문 여는 시간 낮12시~밤9시(화~토) www.bookcafesum.com, 문의 062-954-9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인 듯 남 아닌 현대판 가족 이야기

총장아트홀 내달 7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공연

첫 장면은 문상객을 맞고 있는 두 남자다. 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두 남자, 형제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두 사람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 아빠가 데려온 수동, 엄마가 데려온 연소. 13년을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남' 같은 가족일 뿐이다.

연극 '형제의 밤'은 한낱 한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남겨 놓은 '비밀'을 풀어나가는 '형제의 하룻밤 이야기'다.

형제의 성격은 판이하다. 4수까지 하며 명문대에 들어간 후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연소는 사업하겠다는 가족에게 빚더미 안겨준 수동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수동은 세상물정 하나도 모른 채 공부만 하는 연소가 답답하기 그지 없다.

핀란드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액자에 감춰진 한장의 그림, 핀란드, 1981년, 서로 관계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하나로 엮이고 형제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달라도 너무 다른 형제는 때론 찌질하고 치졸하다. 상대방의 상처를 들추기도 하고,

역지를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깔려 있다. 주제는 다소 무겁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유쾌하다. 약간 지루한 듯한 말장난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품이 끝날 때 즈음이면 마음이 따뜻해지며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두 명의 배우가 이끌어가는 작품이라 무엇보다 연기 호흡이 중요하다.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합이 좋다.

지난 2013년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 후 많은 인기를 모았으며 배우 조재현이 이끄는 (주)수현제작컴퍼니가 우수 작품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드(WITH) 수현재 두 번째 작품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공연됐었다.

핀란드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액자에 감춰진 한장의 그림, 핀란드, 1981년, 서로 관계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하나로 엮이고 형제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달라도 너무 다른 형제는 때론 찌질하고 치졸하다. 상대방의 상처를 들추기도 하고,



연극 '형제의 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내달 3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서 설명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과 기획 공모로 나눠 진행되며 총 지원금은 3억9200만원이다.

일반공모는 14개 단체 내외로, 지역 문화적 환경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기획자 인건비, 강사·교육진행비 등 단체당 1000만~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기획공모는 신규단체 선발없이 지난 2015

년에 활동했던 단체들을 계속 지원한다. 사업설명회는 2월3일 오후 2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cms/) 또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www.gjarte.or.kr)에서 지원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월11~12일 오후 6시까지 광주문화재단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1

/윤영기기자 penfoot@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10월 심화교과제 이벤트 진행중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전라.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증형 상품안내 (100%취 환)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골프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불포함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울 (수도권지역) 1566-9799 경 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 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 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 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 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